



열일곱번째 이야기

Christian Family

[세미나 FT 후기]



2월 말에 시작한 그리스도의 자녀양육 세미나를 5월 22일 마지막 수업으로 종강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Zoom으로 장선규 인도자님과 함께 팀티칭으로 진행했다. Zoom 매체에 익숙지 못하고 서투른 내가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선규 인도자님 덕분이다. 세미나 시작 몇 주 전에 장선규 인도자님이 Zoom 사용법을 차분히 가르쳐 주셨다. 특히 소그룹 토론도 장선규 인도자님 도움으로 가능했다. Zoom 세미나였기에 케냐에서, 광주에서, 또 대구에서도 접속하여 세미나 참여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세미나는 12주이다. 다른 세미나에 비해 세미나 내용이 많고 실천적인 연구 과제가 많은 세미나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코스인데, 아버지의 경험을 장선규 집사님이 채워 주시고 어머니의 경험에서 제가 채워 나갔다. 연령도 40대 중후반의 아버지와 60대의 어머니가 함께하니 세미나를 듣는 분들도 신식과 구식의 콜라보로 지루하지 않았으리라 짐작해 본다. 12주 동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장선규 인도자님과 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잘 마칠 수 있었다. Zoom 세미나였지만 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나눔이 가능했던 것은 이 세미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신 분들 덕분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의 원래 제목은 ‘Christian Family’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정(Family)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움 받기를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완주하신 그자반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쓴이 박은영 권사]

온누리 교회 마포공동체 권사이며, 결혼한 상규와 결혼을 앞둔 현규의 어머니이며, 손자 윤희의 믿음의 할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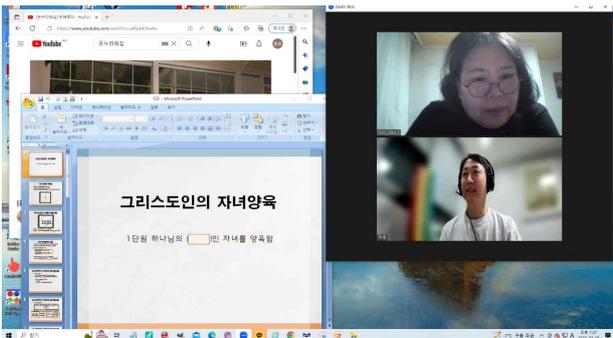
일과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 분주히 Zoom을 열면, 이제 막 점심 식사를 마친 분이 케냐에서 접속한다. 대구에서도, 나주에서도 금세 한자리에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엄마 아빠의 세미나 참여를 양해해 준 귀여운 아이들이 어깨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민다. 미처 일과를 마치지 못한 분은 차량 핸들을 잡고 Zoom 접속하여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모인 이유는 같았다.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고,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지혜가 필요했다.

세미나를 맡게 되었을 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저 자신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대안을 제시해줄 만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저 스스로가 아직도 부족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부모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의 교제는 많은 지혜와 감동을 주었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박은영 권사님께서 본인의 경험들과 지혜를 나눠주시면서 더욱더 입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세미나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박은영 권사님과 팀티칭을 한 덕에, 엄마와 아빠로서 가질 수 있는 자녀양육의 고민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은 시간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분들 덕분에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은혜가 학생분들에게도 공유되는 것을 느낄 때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고명신 권사님을 비롯한, 작년에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공부했던 인도자님들이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양육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첫걸음이다. 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각 가정에 적용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글쓴이 장선규 집사]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2014년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OBC를 시작한 것이 BEE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인도자(FT)로 섬기고 있다. 가족은 사랑스러운 아내 송현지와 아들 종호(중3), 쌍둥이 딸 하영, 하은(초6)이가 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네가 감히 우리를 종교 위선자라고 불렀잖나?

모놀로그-바이블

산헤드린 수뇌부는 그 사내의 일로 초비상이다. 우릴 여기 내리보낸 건 뭘새다 기적의 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든 이 조직의 악점을 잡아 와해시키기 위함이다.

모놀로그-바이블

“도대체 왜 당신 조직은 독하면 전통을 어기는 거요?” 우리가 형의하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줬다.

모놀로그-바이블

“그럼 왜 당신네 조직은 전통 때문에 계명을 어깁니까?”

모놀로그-바이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가 인제!”

모놀로그-바이블

“율법을 잘 지키자고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한때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당신네야말로 율법의 폐기자요 종교 위선자입니다.”

모놀로그-바이블

갑자기 그자가 손짓해 자기 패당을 따로 불러서는, 사람이 부정할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서 더러워진다고 속닥거린다.

모놀로그-바이블

심지어 그는 우리를 장차 하나님이 뽑아 버릴 가라지요 남들까지 함께 추락시킬 눈먼 인도자라고 악담했다.

모놀로그-바이블

너무 화가 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모놀로그-바이블

근데 그 말에 까르륵대는 풍매한 것들에게 화도 못 내고, 그 현란한 언변에 밀려 대꾸 한마디를 제대로 못 했다.

모놀로그-바이블

근데 그 말에 까르륵대는 풍매한 것들에게 화도 못 내고, 그 현란한 언변에 밀려 대꾸 한마디를 제대로 못 했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7월15일(토) '2023 All&One'이 진행됩니다. 주신 은혜와 감동을 나누며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2023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축복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 신청 안내

- ✓ **아프리카**
 1. 10/07-14: 케냐(WLICCC)
 2. 10/15-23: 탄자니아(WLICCC)
 3. 10/24-31: 졸업식(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 ✓ **폴리핀**
 1. 8/22 - 26 부두안(만다나오): 히브리서 세미나
 2. 8/28-9/01 까비때(마닐라 근처) 졸업식(28 일), FTS: 31-9/01
- ✓ **네팔**

11 월 초 중순(졸업식)
- ✓ **인도네시아 - 마갈**

10 월말(술라웨시, 졸업식 및 FTS)
- ✓ **참고사항:**

나라별 전체 일정이 아니라도 단위별 일정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신청 및 문의
해외사역본부(안지민)



4. 2023 ‘여름방학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많은 참석과 홍보 바랍니다.

BEE KOREA

여름방학특강

| | | |
|-----------|------------|-----------|
| 고린도전서 | (월저녁-중) | 6/12-7/31 |
| 성경을 펼쳐라 I | (월저녁-중) | 6/12-8/28 |
| 그리스도인의 결혼 | (토저녁-도곡) | 6/17-8/12 |
| 모세오경 | (일저녁-중) | 7/2-8/27 |
| 히브리서 | (화오전-202호) | 7/4-8/29 |

문의 전화: 02-822-9480
 등록비: 수강료 + 택배비(4,400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1-43004

홈페이지에서 수소를 정확히게 입력해 주셔야 학습서를 택배로 발송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